

고민없는 무상증여 지분처리의 위험성(1)

글 _ 조완석(공인회계사)

어느 벤처회사가 어렵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드디어 그 하루하루도 어렵게 되자 경영자와 주주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결과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분을 무상으로 회사에 내놓고 회사는 이를 적당한 외부사람에게 처분해서 신규 자금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진 후에 회사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식을 증여 받은 해에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다음해가 되어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회계담당자는 이 거래들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직한 문제일 것이다.

이 회사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시점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는 설립이후 제 3기로서 계속해서 결손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회사의 주주 중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다음의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충분히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상증여 지분의 회계처리지 고려해봐야 하는 8가지 문제

- 1) 회사의 회계담당자는 대주주가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2) 만약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하나?

- 3)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하여 평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산하였다면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인가?
- 4) 회사가 계상한 자기주식관련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5) 만약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영(0)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는 없는 것인가?
- 6) 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회사에게 줬으므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
- 7) 대주주가 회사에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기타 주주들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가?
- 8)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상의 8가지의 문제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회계상, 세무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회사의 경우는 위와 같은 충분한 고민 없이 실행에 옮겨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회계상, 세무상 많은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을 실무에서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느꼈던 두 가지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 하나는 설마 이런 일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요즘의 경제 상황에서는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자 다음 호부터는 위의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능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51호에 게재됩니다)